



THREE BLADES. ONE GILLETTE.

Ferdinando Frega — Nando the Scribe

세 개의 면도날. 단 하나의 GILLETTE.

THE FAMILY · 04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모든 것은 — 소리 없이, 자각 없이 — 어쨌든 앞으로 나아간다.

시간처럼.

그것은 묻지 않는다. 경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착한다.

그것에는 이름이 있다: 운명.

한 남자가 어느 날, 자신이 기억되리라고 결심했다.

한 지역에서가 아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다.

인류에게.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서의 어느 오후, 그는 땅바닥에 버려진 면도날 하나를 주웠다.

병뚜껑은 다른 누군가가 발명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제품을 개선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몸짓을 다시 썼다.

면도는 시스템이 되었다.

면도날은 일회용이 되었다.

이름은 영원해졌다.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살 때,
그의 이름을 불렀다.
King Camp Gillette.
프리메이슨 단원.
1894년 『The Human Drift』의 저자.
나의 아버지.
광부와 귀족 어머니의 아들.
정성으로 길러지셨다. 한계 없이 만들어지셨다.
12세에 이미, 다 큰 남자들이 그분을 두려워했다.
그분이 폭력적이셔서가 아니라 —
망설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어느 밤, 영화관에 가는 길에,
그분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무리에게 습격을 당하셨다.
혼자이셨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분은 땅바닥에서 면도날 하나를 발견하셨다.
집어 드셨다.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을 가로질러 자국을 남기셨다.
그들은 달아났다.
그 순간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
14년 뒤:

지원자 120명.

자리 하나.

그분은 3위를 하셨다.

앞의 두 사람은 협상했다.

그분은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Gillette Italia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40년을 머무셨다.

은퇴하신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그분을 붙잡았다.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상징하는 것으로.

Frega.

Gillette에서 온 남자.

면도날.

월요일마다 그분은 일찍 떠나셨다.

금요일마다 그분은 돌아오셨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셨다.

어느 날,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내가 자신을 정말로 닮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몇 년 뒤에야 그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분의 방식이었다.

선언은 없었다.

방향만 있었다.

나는 19세였다.

군 복무.

경찰 시험 합격.

아버지는 1985년 5월, 나폴리에서 나를 만나셨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아니었다.

일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단 하나의 질문을 하셨다:

“네 인생으로 뭘 할 거냐?”

압박은 없었다.

조언도 없었다.

그것뿐이었다.

나는 7일을 들였다.

그리고 나서 Gillette와 연결된 한 컨소시엄에 들어갔다.

가능한 가장 낮은 자리였다.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18년.

나는 거기에 도달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끝났다.

돈이 아니었다.

자리도 아니었다.

흥미였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아버지는 따로 나를 다시 만나셨다.

이미 은퇴하신 뒤였다.

아버지는 나를 말리려 하지 않으셨다.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늘 알고 계셨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언제나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는.

2003년 11월 30일.

나는 나의 어머니 Gillette를 떠났다.

그러나 DNA를 잃지는 않았다.

세 개의 이야기.

세 개의 순간.

이것이 네 번째다.

1993년부터 프리메이슨.

피타고라스.

비의(秘儀)의 수련.

거친 돌을 가져다가

무게를 견디는 무언가로 바꾼다.

정신은 날카롭게 버린다

마음이 먹여 키우는 것을.

나는 국제 매니저가 되었다.

세계를 여행했다.

또다시 18년.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권이 아니다.

두 권도 아니다.

열 권도 아니다.

쉰 권도 아니다.

백 권도 아니다.

1,600권이 넘는다.

나는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나는 책을 팔지 않는다.

나는 접근권을 준다.
시스템은 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른다.
모든 것을 거저 주는 독립 작가는
하나의 범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제다.
나는 시스템을 공격하지 않는다.
나는 더 나쁜 짓을 한다.
시스템에서 가치를 빼앗는다.
그들은 나를 읽는다.
그러나 나를 관리하지 못한다.
나에게 값을 매기지 못한다.
나를 틀에 가두지 못한다.
나는 통제될 수 없다.
나에게는 값이 없다.
아무것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운명은 결코 예상되지 않는다.
나처럼.
그러나 운명은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Nando